

## ■ ( 언론 동향 ) 2021.7.19. “한국농업신문” 보도

### ○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 지속..쌓이는 적자 위기

- 비료업계, 올해 500여억원 영업적자 예상
- 농협중앙회 납품단가인상 요구 '묵묵부답'

올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비료업계가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가운데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500억원 이상의 영업적자로 비료업계가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무기질비료 국제원자재 가격이 지난 연말 이후, 8일 현재까지 급등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 비료업계가 원료수급 애로 지속, 영업 손실이 더욱 커지고 있다.

중국의 내수비료 가격 안정을 위한 요소 스팟물량 조치 지속과 미국·EU 등 서방 국가의 벨라루스 염화칼륨 수출제재 조치가 부각되면서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요소는 중국 내 비료 생산 감소와 내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스팟 물량 조사로 인해 7월 첫주에 이어 가격이 상승해 지난해 연말 274\$/톤에서 8일 기준 476\$/톤으로 74% 폭등했으며, 암모니아는 중동지역 공장 가동 중단 영향 지속으로 지난해 연말 297\$/톤에서 8일 기준 655\$/톤으로 121% 폭등했다.

염화칼륨은 벨라루스의 주 수입원인 염화칼륨 수출제재 조치로 수급 불안정이 더욱 커지면서 지난해 235\$/톤으로 51%로, 조인산은 인산비료의 원료로 암모니아와 인광석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난해 689\$/톤에서 8일 기준 1160\$/톤으로 68% 급등했다.

상황이 악화되면서 비료업계에선 원자재가격 급등과 선박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원료 재고가 급격히 줄어 추비 등 비료 공급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봄철 성수기에 이은 추비 수요에 일부 비료업체에선 요소와 염화칼륨 원료를 확보하지 못해 농가에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비료업계 관계자는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세 지속으로 국내 원료 조달에 어려움은 커지고 있고, 납품단가 인상이 조속히 반영되지 않으면 농업 현장의 물량 공급은 물론, 막대한 적자가 불가피해 비료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농정 동향/주요 이슈

2021. 7. 19.(월)

현재 무기질비료 6개 생산업체는 올해 4월초부터 원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영업 손실 등을 감당하지 못해 비료 납품처인 농협중앙회에 계약단가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비료업체 관계자는 “납품단가 인상이 조속히 반영되지 않으면 올해 500억원 이상의 영업 적자로 업계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농가도 농산물 생산비용 증가로 어려움이 많겠지만 비료업체 생존권 차원에서 농가와 업체가 상생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의 조속한 비료 가격 조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최정민 기자>